

신앙 성장 시리즈 23

## 갈등 해결의 방법

Developing the Art of Gracious Disagreement

# 차례

추천사 / 김상복 목사 .....	4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말라 .....	7
문제들의 이면을 보라 .....	14
문제들 이면의 동기 .....	14
동기들 이면의 신념 .....	17
악순환 이면의 그릇된 신념 .....	21
신호에 주의하라 .....	25
자기보호의 황색등 .....	25
분노의 적색등 .....	28
하나님의 지혜의 녹색등 .....	31
갈등을 관리하라 .....	35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하라 .....	35
당신을 위해 이뤄진 일을 기억하라 .....	38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보호하라 .....	41
당신의 공급자에게 초점을 맞추라 .....	46
화합의 원천 .....	46
화합의 한계 .....	49
질의와 응답 .....	53

## 추천사



갈등은 어디에나 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직장과 나라와 민족 간에도 언제나 갈등이 있다. 우리 모두가 한 명의 주관적 개인이기 때문에 나의 견해와 다른 사람의 견해가 동일 할 수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리, 정책, 집행 방법, 가치관, 우선순위, 성품, 기질, 은사 등 너무도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다. 종종 갈등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다시는 봉사를 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의 결정적 후퇴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치유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들기도 한다. 특히 한국교회 내에는 갈등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갈등을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은 없을까? 예수님은 “화평

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며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임을 보여주셨다. 진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서로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책이 성경적 방법을 제시해 준다. 모두가 이 책을 몇 번씩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원만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특히 교회의 평화를 위해 이 책을 지도자들은 철저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1월  
김 상 복 목사

## 갈등 해결의 방법

우리는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확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너무 동의를 잘 하는 것이 어떻게 오히려 우리를 갈등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분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에서 갈등에 대한,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극적으로 변화시켜주었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소책자가 독자에게, 또는 독자가 아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틴 알 디 한 2세  
RBC 선교원 원장

---

##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말라

---

교리, 예배 스타일, 또는 선교 예산 사용 등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날 때 만일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부정직하게 논쟁을 이끌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갈등에서 초래될 수 있는 상처마저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분쟁의 한 가운데 휘말렸다가 교회를 떠나는 가정이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교회 일에 끼어드나 보라고 하면서 냉담해지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담하여 목회를 중

단하고 생명보험이나 부동산이나 묘지 매매업을 하려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 내 분쟁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의 화합을 위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도록 가만히 있어야만 할까요? 우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마십시오.** 평화와 화합을 위하여 너무 쉽게 동의하다가 그 과정에서 당신의 정직성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갈등이 촉발되기 전에 자주 형성되는 치명적이고 부정직한 침묵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모세, 예수, 바울은 동의를 잘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제일주의를 선택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범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어야 할 이유를 일관되게 발견합니다.

**반대하는 것이 건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심각한 분쟁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은혜롭게 반대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이유들을 많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반대하지 않고 순응하는 추종자들이 많이 있을 때보다 카운슬러가 많을 때 안전이 더 모된다고 가르쳤습니다(잠 11:14). 그는 친구에게 당한 상처는 충성스러운 것이며(27:6), 조작적 아침의 거짓말은 위험한 것이며(26:28),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진정한 친구는 다른 친구를 빛나게 한다(27:17)고 말하였습니다.

---

**은혜롭게 반대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

만일 우리가 건전하게,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반대하는 연습을 제대로 해두지 않았다면, 실제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대응을 할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서로 우리의 생각들을 시험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어떤 반대도 인신공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방어벽들이 올라갑니다. 성질이 나옵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결국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

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잠 18:19)는 말씀의 증거를 생생히 보면서 우리는 자책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건전하게 반대하는 법을 연마하여 배우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든지 위협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교회정책, 교리, 예산, 직원봉급, 음악, 커리큘럼, 시설사용, 청년부 활동, 교회의 징계 등 모든 분야에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로한 목사, 제멋대로인 청소년 사역자, 돈 많은 위원회 위원, 고집센 회계 주변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아내, 친구, 우선순위, 강의스타일 등을 논하다가 쓴 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단의 경향성, 수요기도회 폐지, 선교사 후원, 전도에 대한 철학 등에서도 마찰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문제들 또는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화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갈등이 아닌 충고와 안전과 지혜를 일으키는 일종의 은혜로운 반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소책자에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먼

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갈등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곤란한 문제는 꼭 닥칩니다. 갈등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은 가장 훌륭한 교회들에게, 가장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회 당회들에게, 가장 훌륭한 친구들에게 일어납니다. 갈등은 예수님과 핵심제자 사이에도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은 성숙하지 못했던 고린도교회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성숙했던 빌립보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갈등은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시던 날 밤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을 받았던 핵심 멤버들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신혼여행 경험 같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뒤에는 늘 시험과 환란이 따라 나왔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없을까 기대한다면 역시나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등을 아예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갈등이 생겼을 때, 최대한 은혜롭게 잘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상식에 맞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롬12:18) 라고 한 바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개발해야 할까요? 우리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어떻게 우아하게 반대하는 기술을 익혀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일들 중 한 가지는 갈등에 관한 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들에 대한 이견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짓밟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회와 위원회가 회의도중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의견의 불일치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갈등은 우리가 반대하는 어떤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와 방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쟁점들 아래로 깊숙이 내려가 우리 자신의 내면적 동기들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문제들을 아직 다루기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동기들 아래로 깊숙이 내려가 그 동기들을 형성하는 근원적 신념들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우리의 갈등 해결 접근 방식은 피상적일 것입니다.

표면적 쟁점
보이지 않는 동기
근원적 신념

우리의 차이점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들이 교회의 생존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문제들이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동기들과 잘못된 근원적 신념들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

## 문제들의 이면을 보라

---

건전한 반대의 자유를 즐기는 인간관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동기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문제들 이면의 동기

“너희 중에 지혜와 충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약 3:13-16).

갈등 속의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건전한 반대를 저해하는 보이지 않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동기들로 인해 마치 기회만 잡으면 문제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확실히 밝혀준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싫어한다면(시기), 또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앞서려고 안달이라면(자기추구 또는 이기적 야망), 우리는 갈등적 이해관계를 품고 있는 것이며, 이것들에 의해 우리가 반대하는 접근 방식이 잘못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만일 우리의 동기가 옳다면 심지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관심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마땅히 주의 좋은 다투

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 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딤후 2:24-26).

야고보와 바울만 우리에게 옳은 태도와 동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마음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만일 우리의 동기가 옳지 않다면, 우리의 지식과 믿음과 자기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고전 13:1-3). 행동 이전의 동기는 마땅히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

**진구들은 서로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비열해지지 않고도  
강도 높고 열띤 논의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성경은 또한 악한 동기가 선한 동기를 내칠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배반당하던 날 밤 성찬이 끝났을 때, 제자들끼리 과연 누가

가장 큰 자인지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던 것은 그들의 시기심과 이기적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눅 22:14-27). 그리고 또 몇 시간 뒤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충동시켜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하고 처형하게 한 것은 그들의 시기심이었습니다 (마 27:18; 막 15:10). 그들이 이 기적 행하는 자를 증오한 것은 그와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가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과 영향력을 얻는 데에 위협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 동기들 이면의 신념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벨엘에 이르며 벨엘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

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 13:1-9)

갈등을 정의하면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공간을 차지하거나 한정된 동일한 자원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간에 일어났던 분쟁이었습니다. 그 양쪽이 모두 만족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브람의 대응은 평화적인 것으로,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를 위해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삼촌의 후한 마음을 이용해먹었습니다. 그는 요단 평야를 택했는데, 그 땅은 너무나 푸르게 우거진 곳이라서 창세기는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에 비유한바 있습니다.

아브람이 후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선한 동기 이

상의 것입니다. 아브람이 취약한 자리를 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녕과 행복이 자기가 쥔 주먹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열린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배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 13:14-18). 아브람이 후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단순한 선한 동기를 넘어선 것입니다.

갈등의 동기와 해결방식은 규칙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브람처럼 공급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시게 맡겨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들을 스스로 장악하는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안전이 달려있다고 믿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저 드러누워 사람들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우리를 짓밟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늘 다른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우리의 관심사와 확신의 무게와 강도를 느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우리의 반대가 본질적으로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것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하

는 것이 아니라  
점을 알아야 할 필  
요가 있습니다. 그  
리고 우리가 매우  
자비롭게 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공급  
하시는 하나님의 능  
력 안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  
속에서 동기가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문제들이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매일매일 은혜롭게 살고, 상냥하게 반대하며, 대  
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롯을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는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b>표면적 쟁점</b>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것
<b>보이지 않는 동기</b>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이유, 서로를 위하거나 대적하는 이유
<b>근원적 신념</b>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의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바. 이 신념들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형성될 뿐 아니라 반대하는 방법까지 형성된다.

### 악순환 이면의 그릇된 신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  
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  
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2-7).

갈등의 악순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보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릇된 신념들이 갈등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연료입니다. 그릇된 신념들 때문  
에, 우리가 문제들을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된 근원적 신념들은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분쟁 당사자들에게 왜 편지를 썼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갈라지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구체적 문제들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양쪽이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서로 서로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던 그릇된 근원적 신념들을 파악한다면 그 일들이 조목조목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썼습니다.

상처와 갈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그의 처방은 두 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쟁 중의 교인들을 찾아가 스트레스를 좀 덜어 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하여 지나치게 열심을 내다가 피로와 부담감이 몰려와 갈등상황에 쉽게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안녕이 서로에게 적절한 대우를 받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데서 확보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주 안에

서 기뻐하라고 두 번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니 서로 관용을 눈에 띄게 베풀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확신시킨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감사의 확신을 복돋우면서, 그들에게 그런 것에 대해 집중하지 말고 옳은 것에 대해 집중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빌 4:8-9).

바울은 근원적 신념이라는 진짜 문제들을 다룬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진행되고 있었을 갈등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1. 표면적 쟁점과 상처 ⬇️	<b>갈등의 악순환</b> ⬅️	7. 양갈음 ⬆️
2. 상실감 ⬇️	하나님보다 자아, 환경, 다른 사람들을 신뢰	6. 분노 ⬆️
3. 잘못된 신념 ▶️	4. 자기보호 ▶️	5. 두려움 ⬆️

그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이 화합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비결은 단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우리의 내면적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비결은 인생의 곤란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돌려주고 피해를 피해로 돌려주려는 자기방어, 공포, 분노를 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

## 신호에 주의하라

---

### 자기보호의 황색등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 이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아 나 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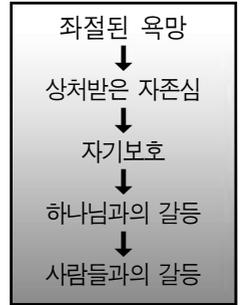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약 3:16; 4:1-6)

시기심과 이기적 야망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우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황색등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신호들이 우리의 생활에 나타날 때 “주의! 위험! 멈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주의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 없이 해로운 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언급한 자기보호는 누구에게나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잘 보고 있다 가 실수할 때 이득을 보려는 일종의 이기심입니다.

야고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종류의 자기보호는 혼동과 악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3:16). 그것은 성취되지 않은 좌절된 욕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4:1-4). 그러나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자기보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게 하는 상처받은 자존심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3:17-4:6).



---

### 이런 종류의 자기보호는 신앙과 반대된다.

---

상처받은 자존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므로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역공을 가하기 위해서는 문제들을 내 손으로 장악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도 괜찮은 거야.” 상처받은 자존심은 말합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 내가 나 자신을 챙기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챙기겠어.”

이 시점에서 황색등이 무시된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 존심은 자신을 알고 도울 능력에 대한 그릇된 신념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아예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천국 자체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가족이나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갈등 속으로 말려들어 버린 것입니다.

### 분노의 적색등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삼상 18:7-12).

우리는 자기보호를 주의의 황색등으로 보는 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분노를 긴급경고의 적색등으로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려했던 위험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 함이니라”(약 1:19-20).

분노를 힘의 표현과 특권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면, 분노는 보이지 않는 나약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우리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는 과정에서 성을 낸다면 우리는 힘의 증거가 아닌 깊은 나약함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성내는 것은 우리를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잠 25:28).

우리는 그런 나약함을 사울의 두려운 분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공포는 사람들이 불타는 건물이나 죄에

서 도망갈 때의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그의 분노는 불의와 악에 대항할 때의 통제된 분노와는 다른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의 분노는 (엡 4:26에 있는 바와 같이) 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판에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너무나 두려워한 반면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니다. 그의 분노는 다윗을 향해서가 아니라 정작 자기 자신의 죄를 향해서 표현되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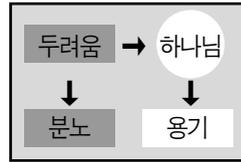
---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언 25:28.**

---

다윗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니다. 그의 시들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예를 들면 시편 3,4편).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추적을 피해 수년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기를 쓰는 왕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방식으로 공포에 대응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기방어를 내세우며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 부으신 자를 자기 손으로

치지 않겠다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삼상 24:6). 그는 자기의 공포를 인정하고 그 불안감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윗은 공포심이 그를 통제 불가능한 분노와 복수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공포를 용기로 바꿔주시는 것을 무수히 체험하였습니다.

### 하나님의 지혜의 녹색등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 3:13-4:1).

우리가 자기보호라는 황색등과 분노라는 적색등을 무시할 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때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버려진 폐차처럼 전락합니다. 그들의 눈은 이제 그리스도나 교회라는 말을 들어도 더 이상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가기를 거부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런 손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설명을 하나님의 지혜의 “녹색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신호등”을 따른다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음과 같은 영과 지혜를 만들어내시도록 기꺼이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시기와 이기적 야망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

님의 관심과 부합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를 다스리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롬 14:17).

**화평:** 하나님과 화평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기를 열망합니다.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모욕하거나, 이용해먹거나, 속이거나, 잡아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과 행동으로 공포와 분노를 내쫓고 신뢰를 북돋아줍니다.

**관용:** 이것은 율법서와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자비에 근거하여 언제 자제심을 보여주어야 할지를 아는 자질입니다.

**양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사를 잘 들어주게 하는 유순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유순함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유순함입니다.

**공훈과 선한 열매가 가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알고 친절하게 다가가 하나

님께 받은 힘과 은사를 나눔으로써 고통을 완화시키고 함께 나눕니다.

**편벽이 없음:** 그런 친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대가를 바라고 주는 이기적 전략에서 비롯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지와 상관없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음:**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므로, 그 행동들이 단순히 피상적이지 않고 인간의 인정을 받으려고 계획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정직한” 지혜입니다.

이 길이 그리스도께서 갈등에 직면하셨을 때 따랐던 화평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용하여 화평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도우시는 그분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조짐이 보일 때 야고보서 3:17의 녹색등이 우리가 따라야 할 “신호”입니다.

---

## 갈등을 관리하라

---

###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하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 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5-17).*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에 휘말렸을 때 수동적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반대하는 기술을 권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잠 27:17), 친구들이 서로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에 비추어 평가해주어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주도적이 되어야 할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노여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판단”하려고 하기 전에 당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교만이나 위선의 “들보”를 살펴보십시오 (마 7:1-5).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확신:** 토론하고, 수용하고, 서로 각자의 신앙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을 존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을 결국 우리 모두를 판단하실 분께 직접 고하도록 하십시오 (롬 14:1-23).

**교리 문제:** 모든 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시험하십시오.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십시오. 논쟁의 여지가 많은 문제들을 피하시고, 대면했을 때 건전한 교리를 부인하는 소위 형제라는 자들을 피하십시오 (행 15:1-35; 딤후 2:15-26).

**피해:** 누군가가 당신에게 죄를 지을 때는

1. 당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혼자 찾아가십시오.** 지지자를 얻으려고 떠벌이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피해 확산을 막으십시오. 만일 이것이 먹히지 않는다면...

2. **두 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문제에 대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게 하여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중시키십시오.

만일 그 사람이 그래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신의 증인들이 당신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는데 동의한다면...

1. 혼자 찾아가 일대일로 대면하라	2. 두 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
3. 교회에 알리라	4. 불신자로 취급하라

3. 그 문제를 **교회에 알리십시오.** 범법자가 자기가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영적 가족인 교회 앞에서 직접 설명하게 하십시오. 범죄사실을 공개할 때는 사랑으로 그러나 확고하게 하여 죄인이 제 정신을 차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의 압박도 범죄자에게 그 문제 해결의 의지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4. 그 사람을 **불신자로 대하라**. 이것은 그 사람을 멀리 천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들의 죄 문제에 있어서 “그들을 반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적으로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 18:15-17; 고전 5:11-13).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교회와 좋은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 함께 여겨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들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신의 영적 문제들을 직시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오래 끌던 편향된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 당신을 위해 이뤄진 일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빛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로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계 백 데나리온 빛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 18:23-35).

앞에서 묘사된 마태복음 18:15-17의 원칙을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원칙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용하십시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대결하여 화평을 추구하는 일에는 겸손의 영이 요구됩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교만스러운 바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기껏해야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종류의 죄에 대하여 시인하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자행한 어떤 죄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어둠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자리에서 영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겸손의 영은 우리 주님이 개인적 피해의 문제들을 갖고 서로 대면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신자를 그 범법 사실을 갖고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후에 용서에 관한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달러의 빚을 탕감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아주 적은 금액을 빚진 자를 용서해주기를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임금은 빚을 갚으라 명령하였습니다. (정직한 의무를 간과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의 빚을 인정하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탕감을 많이 받고도 정작 자기에게 상대적으로 훨씬 덜 빚진 사람에게는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여, 결국 전보다 더 심각한 곤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등의 감정과 혼동에 직면했을 때 바라보아야 할 곳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의 실재를 보게 되는 것은 우리 구주의 고통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은혜롭게 다루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은혜롭게 다루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는 곳도 그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할 때 양갓음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할 기회를 얻으려 해야 한다는 것을 새로이 깨닫게 되는 곳도 그 십자가 앞입니다.

###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보호하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

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5-7,20).

지금까지 분명히 본 바로는, 갈등에 대한 성경적 해결 방법의 정신과 과정이 다음과 같은 세상적인 전술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피하기:** 진실과 사랑을 희생시키면서 평화를 얻으려 하는 것.

**공격하기:** 위협, 강압, 폭력으로 평화를 얻으려 하는 것.

**환심 사기:** 악에게 굴복함으로써 평화를 얻으려 하는 것.

**협상하기:** 서로 자기이해를 따지면서 평화를 얻으려 하는 것.

**소송하기:** 법의 보호를 받아 평화를 얻으려 하는 것.

위의 갈등 해결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 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방법이 교회 내의 분쟁 해결을 위한 성경적 방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그들은 영적 실패를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혼, 교회 분열, 극심한 분쟁 따위에 휘말려 있을 때 하나님의 명예와 유익이라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노하고, 상처받고, 초래될 결과에 대해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끼게 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돌보실 수 있다고 느낍니다.

평화와 화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이보다 더 절실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명성과 유익보다 하나님

의 명성과 유익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젊은 목사에게 갈등에 대하여 충고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지어다.” (딤후 2:19)라고 하였습니다.

---

**교회가 “가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 제도를 이용할 때 하나님의 명에 손상을 입게 된다.**

---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0-23).

때때로 논쟁의 열기와 방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름과 그리스도의 이름 사이에 고유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망각합니다. 때때로 화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유익을 존중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때때로 상처받은 자존심의 무게에 눌려 실족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의 화합을 위하여 기도하셨는지를—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기도하셨는지를 망각합니다 (요 17:23).

---

## 당신의 공급자에게 초점을 맞추라

---

### 화합의 원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1-5).

교회 분쟁의 값비싼 결과를 생각할 때 바울이 화합을 위하여 호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갈등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끼칠 손상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지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입게 될 엄청난 신뢰 상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고, 쓴뿌리와 분노와 비열함으로 마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 나타날 자신감 상실, 양심 상실, 영적 열정 상실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이고 아무도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분쟁이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갈등을 풀지 못합니다. 평화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주지 않습니다. 내적 평화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데서 오지 않고, ‘그분’을 아는 데서 옵니다. 그분의 임재의 능력, 그분의 지혜의 은유함, 그분의 계획의 선함, 그분의 사랑의 깊이, 심지어 갈등의 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는 그분의 풍성한 영을 알 때 그 평화가 옵니다.

갈등 속에서의 행동과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의지하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가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게 논증한 이유입니다. 그는 그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서로서로 화평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보살핌을 잘 받고 있으니, 이제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납득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의 자비로 부드러워졌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불안이 여러분의 아버지와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으로 제거되었다면, 이제 그분이 여러분을 더 친절하고 더 온유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도록 여러분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31**

---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 2:12-15).

바울은 갈등 속에서의 우리의 노력과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요약한 후에, 그는 이어서 자기절제와 진지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그런 주의와 노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촉구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력적인 세상에서 “해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친절하고 더 온유한 교회가 되기 위한 해답입니다.

### **화합의 한계**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좃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1-16).

우리가 설명한 화합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확고하고 은혜로운 대결의 순간들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2:11-16에서 바울은 심각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사도 베드로와 공개적으로 대결하였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두 사도들 간의 이런 대결이 어떻게 바울이 교회 일치를 위해 반복적으로 호소한 일과 들어맞을 수 있는지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유익이나 교리를 타협하는 식의 하나됨을 결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바울은 옳고 참된 것을 희생시키면서 서로를 보호하거나 죄를 은폐하라고 격려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11-16과 빌립보서 2:1-5를 다시 보십시오. 이 두 본문이 매우 다르게 보이고 느껴져도, 그 둘 사이에는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유익과 대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논증하였던 것입니다. 양쪽에서 바울은 옳은 믿음에 기초한 화합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양쪽에서 바울은 우리 자신만 챙기지 않고 서로서로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로부터 승인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구원의 교리나 이방인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믿었던 것이 명백합니다. 베드로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방문하자 우선적으로 그 이방인들에게

서 자신을 분리시킴으로써 이방인들의 유익을 저버렸습니다. 그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고수하도록 도운 셈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하여 헛갈리는 신호를 보낸 셈이었습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타협하는 종류의 확합을 결코 요구하신 적이 없다.**

---

바울이 베드로와 대치했을 때 급히 성내지 않고 자기 절제와 은혜를 드러낸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베드로의 행동을 문제 삼은 것은 그렇게 해서 그가 베드로보다 더 우위에 있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모두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한 배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서로서로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지만, 동시에 서로서로 알고도 죄를 짓게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

## 질 의와 응 답

---

**비밀을 지켜주고자 하는 태도가 부족한 것이 교회 내 갈등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멈추면 갈등을 멈추게 되지 않을까요?**

잠언 26:20 말씀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마 12:34)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영감된 진리가 기준은 세워주지만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조직의 규칙이든 성경의 규칙이든 어떤 규칙도 교회

갈등의 본질에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경건하다는 평판을 받는 성령충만한(절제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신앙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딤후 3:1-13). 이 자격요건을 맞추려면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정책이나 성경적 법규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깨진 적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다면, 어떤 비밀보호 규칙도 그들의 자기보호적 태도가 회중에게로 새나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동기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의 필요들을 언제나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다는 깊은 근원적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성경의 원칙에 따라 갈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영적 확신과 자유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동기를 강조하다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바로 그 일을—다른 사람들의 동기 판단하기를—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상태 명세서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거만하게 판단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을 갖고 언제 문제를 삼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랑이 무수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지 않나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이 더 나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하기가 무서워서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해보십시오. “그 문제가 하나님의 명성을 해치고 있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 그와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

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자신을 해롭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무수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8).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회개하지 않은 죄를 은폐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용서와 화해를 복돋아주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27:6에서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때때로 사랑은 용서하고 덮어주기 전에 대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나다.”라고 기도하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간구는 자기를 처형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역할을 그들이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면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해롭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저리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남들을 용서해주어야 한다는 성경말씀은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까지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의 죄 사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눅 18:9-14). 가족의 용서 문제에 관해서는, 용서를 얻기 위하여 드러난 죄를 고백할 것을 성경은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요일 1:9).

**용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만큼 유익하지 않은가요? 용서는 우리를 잡아먹어버릴 수 있는 쓴뿌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나요?**

이 문제를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근거한 용서의 영은 우리

를 쓴뿌리에서 진정 해방시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상대방이 우리를 파괴하는 일은 그의 능력 밖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만일 상대방이 계속 완고하게 자기의 잘못 고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곤경에서 꺼내줄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의 요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그 갈등이 너무 커서 교회 지도자들과 대표들이 쓴뿌리와 분노가 없이는 함께 기도와 대화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그리고 만일 그 분쟁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들 내면의 분노와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해줄 사람이 교회 내에 없다면, 그렇다면 외부 중재자의 도움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태도들이 옳다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차이점들을 해결할 통찰과 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어떤 외적 도움도 기꺼이 요청할 것입니다. 그

리나 그것이 가져올 당황스러움 때문에 도움 받기를 꺼린다면, 그렇다면 교만의 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름을 일으키나 여호와의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28:25**

---

**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갈등의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18-19에서 사도바울이 썼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다른 번역에 보면, “너희 중에 진실한 자들이 인정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갈등은 최선과 최악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누가 과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내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분노와 쓴뿌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또는 우리

의 환경을 어느 정도나 의지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분노와 쓴뿌리는 둘 중의 한 가지 가능성을 드러내는 적색깃발입니다. 당신은 비록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있다 해도 실제로는 그분과 전혀 동행하지 않고 있거나, 그분을 안 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알고 있지만 그분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바라건대 이 소책자가 당신의 가슴에 와 닿아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였기를 바랍니다.

필자가 현재 교회 분쟁의 구체적 사례들을 들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등에 대응하는 방법과 이유입니다. 비록 우리가 쟁점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의견이 달라도 인간으로서는 그들을 실제로 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은혜로운 영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선한 동기와 의도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확신과 그분과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증거를 그들이 볼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로, 진리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동질성을 반영하는 평화의

일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 5:9).

---

**확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9**

---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깨진 관계를 중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바로 이 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족적 닮은꼴을 지니고 있을 때만 갈등 속에 평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적 동질성이 바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요, 성령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신자들에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요 17:21). 우리가 그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성장 시리즈 23

## 갈등 해결의 방법

Developing the Art of Gracious Disagreement

인 쇄 : 2004년 11월 27일

발 행 : 2004년 11월 28일

감 수 : 신표근

번 역 : 차동재

편 집 : 최부웅, 신영균

발행인 : 김상복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031) 780-9565~8